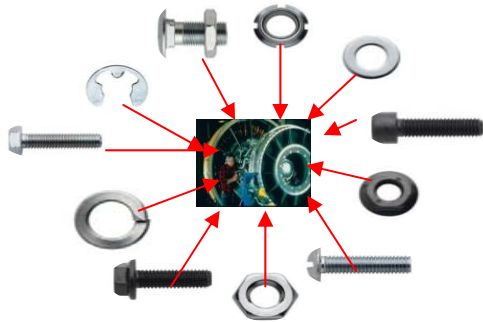


대한민국 화스너산업 발전을 위한 호소



한국화스너(주)
대표이사 김덕한

기계장비는 (대부분) 기계체결요소로 조립·체결됩니다. 즉, 기계장비의 기초건강을 책임지며, 조립생산원가를 크게 좌우하는것이 기계체결요소입니다.....대한민국 기계장비산업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볼트너트라는 천시된 이름으로) 산업발전사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으며, 근간에는 **가격지상주의 구매관행**의 희생물이되어 (低價수입품들의 등살에) 나날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오래지않아 대한민국의 기계장비생산을 모두 싸구려 수입품 볼트너트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복사기 한대에 258개의 화스너가 들어 있습니다. 대략 10원정도 하므로 3,000원미만의 구입비용이 들게됩니다. 10% 싸게사면 300원이고, 20% 비싸게 사면 600원입니다.....여기다가 목메는것을 **경영능력**이나 **원가절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립비용의 핵심은 (스크류값의 10배가 넘는) **인건비**에 있습니다. 258개의 화스너품목을 (1)**조달관리**하고 (2)**조립체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아마도 50,000원은 넘을 겁니다. 이중 10%만 절감해도 화스너값 다 나오고도 남습니다.

(규격품이다 보니) 가격비교가 쉽다는 이유로 원가절감 얘기만 나오면 우선적으로 두드려 맞는것이 화스너품목입니다. 싸구려 수입품들이 가격기준이 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군요. **제발 화스너품목은 비싼것으로 구입해주시요.** 가격과 품질은 정비례하며, 비싼만큼 제값을 합니다..... **작업인건비를 크게 줄입니다.**

제발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봐주시요.

(화스너사용이 많은) 기계장비/전자장비제작사들에게 조립비용은 매출액의 3%나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